

미흡한 科學技術 投資補填위해

對外 競爭力伸張은 科學技術 지원으로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 金 容 完

尊敬하는 金允基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 內外貴賓, 그리고 科學技術者 여러
분!

本人은 올해로서 10周年的 발자취를 남
긴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에 對하여 우선
慶賀해 마지않으며 이 뜻깊은 해에 會館
建築 落成을 가지게 된것을 聯合會發展의
징표로 보아 충심으로 祝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나라 科學技術發展
의 殿堂이 될 本會館·落成式에 參席하게

된 것을 무한한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人類가 自然과의 투쟁을 거쳐 다시 그것을 支配하게 되었으
며 더욱 萬物의 榮光임을 과시케한 技術의 發展은 有史以來 눈부신바 있
으며 그 發展의 速度는 날이 갈수록 加速을 더해가고 있는 터입니다.

産業革命以後 눈부신 發展을 거듭하여 온 西歐技術이 우리나라에 소개
된 것은 19세기 後半이 되는 開港이후 西歐文物이 들어오기 始作하면서부
터되었습니다. 그러나 主體의이고 計劃的인 技術導入은 1960年代에 들어서
서 經濟開發計劃을 遂行하면서부터 始作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期間이었으나 先進된 西歐技術의 導入으로 우리나라는 靑
목할만한 經濟成長을 이루어 왔고 이제는 中進國에서 先進國으로 向한 발
돋음에 總力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經濟構造上으로도 輕工業에서 重化學工業을 指向하고 있으며 이러한 重
化學工業時代의 到來와 함께 값싼 賃金이 武器가 되었던 時代는 지나가고
高度의 科學技術이 武器가 되는 時代가 到來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向後 우리나라 . 先進經濟로의 발돋움과 그리고 熾烈한 國際經
濟속에서 對外競爭力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科學技術의 振興이重
要하다 하겠습니다.

60年代以後 우리나라는 3次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수행하면서
눈부신 輸出伸張을 達成하였습니다. 1次計劃期間 동안의 年平均 商品輸出
伸張率은 43.7%, 2次計劃期間에는 35.2%, 3次 計劃期間에는 41.8%라는

政府·業界 三位一體 이루자 科學技術界

技術移植時 發生하는 副作用 줄이자

놀라운 成長을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1次計劃이 始作되었던 1962年の 우리나라 輸出額은 5千5百萬「달러」에 不過 하던 것이 3次計劃의 마지막 해인 今年의 輸出은 目標額 65億「달러」를 無難히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15年동안에 무려 118倍라는 놀라운 實績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제4차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보면 마지막 해인 1981年の 輸出 目標額이 174億 2000萬「달러」로 策定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輸出主導型의 經濟構造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第4次計劃의 성공여부는 輸出 目標의 달성여부에 달려있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한번 強調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國際市場에서 우리 商品의 對外競爭力은 어디까지나 高度의 科學技術로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次計劃은 이 점이 어느때보다 더 認識이 됨으로써 1974年の GNP에 대한 科學技術投資比率이 0.34%에 不過하던 것을 4次計劃이 끝나는 1981年の 比率은 1.0%水準으로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先進國의 경우 60年代初에 이미 GNP에 대한 科學技術投資比率은 1%水準을 넘어섰던 것이며 特히 西獨의 경우에는 2%에 육박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先進國에 比하면 아직도 미흡한 우리나라 科學技術投資를 補填하기 위해서는 政府 業界 그리고 科學技術界가 三位一體가 되어 刻苦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차계에 附言하고 싶은 것은 西歐風土에서 生成된 西歐技術이 우리나라에 移植됨으로써 發生하는 副作用을 極小化해야 되겠으며 아울러 長期的인 觀點에서 主體的인 技術成長의 土臺를 形成해야 되겠습니다.

本人은 오늘 落成되는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館이 이러한 重且大한 役割을 위한 出發의 信號가 될 것을 바라마지 않으며 또 技術韓國을 建設할 殿堂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祝辭에 가름하고자 합니다.